

# ‘獨聖’의 개념정립과 信仰에 관한 研究

신은미\*

- I. 머리말
- II. 獨聖 那畔尊者의 개념
- III. 那畔尊者의 어원
- IV. 獨聖信仰의 성립과 전개
- V. 맺음말

## I. 머리말

오늘날 전국의 많은 사찰에는 독성을 모신 전각이 독성각, 삼성각 등의 이름으로 남아있고 그 안에는 예배대상으로서의 독성상이나 독성탱화가 모셔져 있다.<sup>1</sup> 이 獨聖 那畔尊者는 남방불교권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국불교만의 고유한 신앙대상이다. 신앙의 바탕이 되는 관련 소의경전이 없음은 물론 명칭이나 행적에 대해서 알려주는 經論이나 史記도 없고, 오직 우리나라에만 나반존자에 대한 儀式文이 전해져오고 있다.<sup>2</sup>

독성의 이러한 애매모호함으로 기존 독성에 대한 연구는 칠성, 산신과 함께 삼성각

\* 인천시립송암미술관 학예연구사

<sup>1</sup> 현존하는 독성도 제작 현황을 『韓國의 佛畫』1~40(성보문화재연구원) 및 『한국의 사찰문화재』全卷(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를 참고하여 정리해볼 때, 1812년에 제작된 안양원 독성도가 가장 이른 예이며 이후 1950년까지 약 300여점 정도 알려져 있다. 19세기 이전의 작품은 아직까지 찾을 수 없으며 그것도 1850년대 이후의 작품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조사되지 않은 독성도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제로는 훨씬 많은 양의 독성도가 전국 곳곳에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19세기 이전으로 올라가는 작품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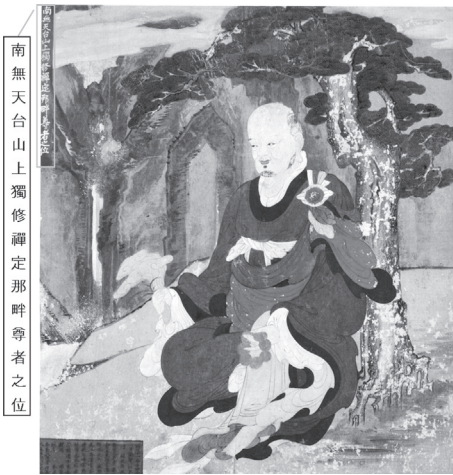
<sup>2</sup> 이지관, 『那畔信仰考』, 『가산학보』 제8호(가산불교문화연구원 가산학회, 2000), p. 12.

에 봉안되는 것과 관련하여 불교와 도교, 혹은 민간신앙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예로 주로 민속학적 관점에서 진행되었다.<sup>3</sup> 따라서 독성은 三聖의 일부분으로서 함께 언급되어온 것이 대부분으로 독성의 성격이나 도상적 특징, 조성배경 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하는 독성나반존자가 어떠한 성격을 가진 존재인지 그 개념을 정리하고 나반존자의 어원이 무엇인지 고찰할 것이다. 아울러 조선 후기 독성신앙이 성립된 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獨聖 那畔尊者的 개념

### 1. 독성 諸說과 반론



도 1 〈마곡사 독성도〉 화기(南無天台山上獨修禪定那畔尊者之位), 1872, 불교중앙박물관 소장(사진 : 『한국의 불화』)

조선 후기 독성관련 기록이나 독성도 畫記 상에서 독성은 주로 ‘天台山上 那畔尊者’로 표현된다(도 1). 이 ‘나반존자’라는 명칭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인도는 물론 중국이나 일본 등 그 어디에서도 그 명칭과 신앙에 대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독성 나반존자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16나한 중의 한 명인 빈두로를 독성으로 보는 설<sup>4</sup>을 비롯하여 십대제자 중의 한 명인 가섭으로 보는 설<sup>5</sup>, 때로는 단군으로 보

3 독성도에 대해서는 특히 민속학적 관점에서의 삼성신앙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유동식, 「불교사찰의 삼성각과 삼성신앙에 대하여」, 『문화인류학』6(한국문화인류학회, 1974); 유동식, 「韓國의 土着信仰과 民衆의 佛教受用形態」, 『延世論叢』12(연세대학교대학원, 1975); 徐慶田, 「韓國의 七星信仰」, 『논문집』14(원광대학교, 1980); 오출세, 「불교와 민속신앙」, 『불교학연구』제5호 (2002).

4 이지관, 「那畔信仰考」, 『가산학보』제8호(가산불교문화연구원 가산학회, 2000), pp. 14-17.

5 『常用佛教儀式解說』(법회연구원, 2004)

는 설<sup>6</sup>까지 다양하다. 근래에는 무속의 영향으로 나한이 와전되어 나반으로 불린다는 설까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기존 독성에 대한 오해를 풀고 독성이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밝혀보고자 한다.

독성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인 『靈山大會作法節次』(1634)에 수록된 〈獨聖儀文〉에는

‘독성은 석가 입멸 후 미륵이 하생하기 전까지, 티끌과 더러움의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숨고 나타남에 걸림이 없으며, 층층으로 된 대위에 조용히 머물러 편안히 선정을 닦고, 축축 늘어진 소나무 사이에서 오고감이 자유롭고, 산이 깊어 물이 졸졸 흐르는 한 칸 난야에서 앉거나 누운 채 소요하며, 꽃은 만개하고 새는 지저귀니 소리와 색깔이 아름다운 곳에서 자유로이 경행하며, 붉은 가사 반 어깨에 걸친 채 도를 즐기며 흰 눈썹에 가린 듯한 눈은 허공을 바라보니 현재는 선정에 머무르나 한량없는 공양을 받을만하니, 만약 공양을 올리면 반드시 신통으로 살피어 소원대로 이루게 한다.....’<sup>7</sup>

고 하여 독성을 열반에 들지 않고 미륵이 오기를 기다리며 홀로 수행하는 자이며, 선정에 들었지만 만약 공양을 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신통으로 살피어 주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흰 눈썹에 가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것으로 묘사된 독성의 모습에 대한 설명은 19세기 이후 제작된 독성도에서 독성을 노비구형으로 묘사하는 배경이 된다.

독성에 대해 가장 널리 퍼져있는 인식은 독성빈두로설이다. 미륵불이 올 때까지 열반에 들지 않고 福田이 된다는 성격이 16나한과 일치하고, 흰 눈썹에 가린 눈을 가진 모습에서 독성을 심육나한 중의 제1존자인 빈두로존자로 보는 견해가 생겨난 것으로 생각된다. 즉 『阿育王經』卷三에는 ‘빈두로의 머리는 온통 흰색으로 눈썹은 길게 늘어뜨려 얼굴을 덮어 緣覺身 즉 벽지불 같았다’<sup>8</sup>고 빈두로존자의 형상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 독성을 빈두로존자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빈두로존자는 중국에서는 속칭 ‘長眉羅

6 기원과 유래가 명확하지 않은 독성의 성격에 대하여 최남선은 나반존자는 불교 고유의 신앙형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단군을 국조로 모셔온 전통이 계승된 것으로 보고 민간신앙에 나반존자의 기원을 두기도 하였다. 최남선이 독성을 단군으로 여긴 이래 이에 동조하는 의견들도 있다. 산신, 칠성과 더불어 불교의 토착화를 설명하는 대상으로 보아 독성각을 불교 본래의 독성신앙에 단군신앙을 결합시킨 공간으로 보기도 한다. 오출세, 「불교와 민속신앙」, 『불교학연구』제5호 (2002), p. 57.

7 『靈山大會作法節次』〈獨聖儀文〉(『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2집) “仰惟獨聖者 釋尊既滅之後 慈氏未生之前 不往塵區 隱現無礙 或於層層臺上 靜居安禪 或於落落松間 往返任意 山隱隱水潺潺 一間蘭若 坐臥逍遙 華灼灼鳥 聲色紛然 經行自在 霞衲半肩而樂道 雪眉覆眼而觀空 現住禪那 應供無量 若伸供養之儀 必賜神通之鑑 ...”(번역문은 법회연구원, 『常用佛教儀式解說』, 2004, pp. 192-215 참조)

8 『阿育王經』卷三(僧伽婆羅譯, 대정장50) “又見賓頭盧頭髮皓白顏皮眉毛垂覆面如, 緣覺身...”

漢'으로 불리며 일찍부터 禪林의 식당에 안치하여 공양을 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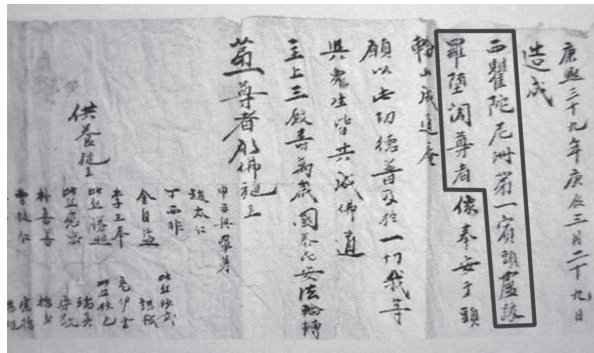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빈두로존자에 대한 단독신앙이 유행한 적이 없으며 조선후기에 조성된 16나한도에서도 각 존자에 해당하는 도상이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어 흰머리에 흰눈썹은 모든 나한에게 통용되는 표현 기법으로 사용된다.<sup>9</sup> 따라서 『阿育王經』에서 묘사한 빈두로존자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자의 모습으로 통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辟支佛因緣經』에는 벽지불 깨달음을 얻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빈두로존자도 그 중 한 명이다. 이처럼 벽지불이란 특정의 인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자에 대한 총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독성을 빈두로존자로 오해하면서 16나한 중의 한 분으로 조성된 기록이 있는 상까지도 나반존자상으로 부르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1700년에 조성된 기록이 있는 축성암 목조빈두로존자상(도 2)의 경우 조성발원문(도 3)에 분명히 '第一賓頭盧尊者'를 조성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존명을 나반존자로 칭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sup>10</sup>

세존일멸 후 미륵불이 하생하기 전까지 중생들의福田이 된다는 성격은 빈두로존자를 비롯한 16나한 뿐



도 2 <목조빈두로존자상>, 1700, 높이 46cm, 영암군 축성암 소장 (사진 : 문화재청)



도 3 <목조빈두로존자상 조성발원문>, 1700, 118×26cm, 영암군 축성암 소장(사진 : 문화재청)

9 조선후기 십육나한과 관련한 논문은 辛恩美, 「朝鮮後期 十六羅漢圖 研究」(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1) 참조.  
 10 현재 영암 축성암에 소장되어 있는 나한상은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소장된 가섭상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발원문을 통하여 1700년(강희39년) 석가모니불, 가섭아난존자상, 16나한상을 함께 조성했음을 알 수 있다. 金理那,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조선시대 가섭존자상」, 『미술자료』33(국립중앙박물관, 1982); 복장조성문 “康熙三十九年 庚辰三月 二十九日 造成 西瞿陀尼洲 第一賓頭盧跋羅墮闍 尊者像 奉安于頭輪山成道庵…善才良匠 色蘭 一機…” 『한국의 사찰문화재-전라남도』해설편(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p. 365.

만 아니라 가섭 또한 부여받은 사명이기도 하다. 『祖堂集』에는 가섭이 석가의 유훈을 받들어 계족산에 입정하여 미륵이 출현할 때 석존의 의발을 미륵에게 전승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음을 설하고 있으며<sup>11</sup>, 『彌勒下生經』에는 “大迦葉比丘, 軍屠鉢嘆比丘, 賓頭盧比丘, 羅云比丘의 4대성문은 열반에 들지 말고, 영구히 정법을 수호하여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라”<sup>12</sup>고 하여 四大聲聞의 정법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이처럼 ‘세간에 머물며 열반하지 않고 미륵을 기다리는’ 성격만 가지고 독성나반존자를 빈두로존자나 가섭으로 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음은 독성의 주 거처로 표현되는 天台山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독성신앙으로 이름난 사찰들이 많다. 이들 사찰에서 독성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 독성의 주처를 ‘남인도 천태산’이라 주로 표현한다. 독성과 관련된 다양한 글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경향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독성도의 화기나 기타 독성관련 의식문에서도 천태산이 남인도에 있다는 표현은 없다. 그럼에도 천태산의 위치를 남인도로 비정한 것은 『청빈두로경』에서 빈두로존자의 주처를 ‘천축 마리산’이라 한 것이나, 16나한의 소의경전인 『法住記』에서 제1나한인 빈두로존자의 주처를 ‘西瞿陀尼洲’라고 한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독성이 빈두로존자라는 가정 하에 천태산을 남인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독성을 빈두로나 가섭으로 비정하였다면 <독성의문>을 비롯한 의식문이나 독성도의 畫記에서 독성의 주처를 마리산이나 계족산으로 명명하였을 것이다. 나반존자가 머무르는 천태산은 특정 존자의 수행처가 아닌 나한도량의 대표성을 가진 곳으로 볼 수 있다.<sup>13</sup>

이상에서 볼 때 독성은 빈두로존자나 가섭존자처럼 특정대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홀로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은 모든 성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1 『祖堂集』I(한글대장경, 동국역경원) 45년동안 세상에 머무르시면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시고는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래께서는 正法安藏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늙었다. 부처님의 승가리 옷을 가지고 계족산에 들어가서 미륵불께서 태어나시기를 기다리겠다. 그대는 부처님의 분부를 잘 받들어 바른 법을 퍼뜨려서 끊이지 않게 하라”고 하였다.’

12 『彌勒下生經』(西晉竺法護譯, 대정장 14) “所謂大迦葉比丘, 軍屠鉢嘆比丘, 賓頭盧比丘, 羅云比丘, 汝等四大聲聞要不般涅槃, 須吾法滅盡, 然後乃當般涅槃”

13 천태산은 중국 절강성에 위치한 산으로 천태종의 본거지이자 오백나한신앙의 본거지로 유명한 곳이다. 中村元久·久野健監修, 『佛教美術事典』(東京書籍, 2002), 613b 참조.

## 2. 獨聖 ; 獨覺의 대승적 전환

〈獨聖儀文〉의 請辭부분에는 독성을 ‘영산에서 부처님으로부터 부촉을 받아 항상 천태산에서 홀로 선정을 닦으며 열반에 들지 않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 용화세계를 기다리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sup>14</sup> 홀로 선정을 닦는 존재는 바로 ‘獨修聖’이며 이는 독성을 ‘혼자 인연의 이치를 깨달아 도를 이룬 소승불교의 성자’로 해석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sup>15</sup> 여기서 말하는 소승불교의 성자란 바로 ‘獨覺’<sup>16</sup>을 의미한다. 즉 독성과 독각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독성의문〉을 비롯한 독성관련 의식문을 통해서 볼 때 독성은 단순한 소승적 성자인 독각이 아니라 대승적 보살행을 실천하는 변화된 존재라는 점이다. 이러한 독각의 독성으로의 전환은 기존 불교의식 속에서의 독각에 대한 공양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조선시대 행해진 다양한 불교의식 속에서 獨覺은 삼보공양의 한 대상으로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수록재 의식 속에서의 벽지불공양을 들 수 있다.

수륙재는 중국 송·원대에 성립되어 고려시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 조선시대에는 폭넓게 행해진 국행 불교의식이다.<sup>17</sup> 중국의 수록의문은 11세기부터 활발하게 조성되어 여러 편의 儀文이 찬술되었다.<sup>18</sup> 중국의 수록재는 상하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벽지불에 대한 공양은 주로 상단에서 행해지며 대체로 경전속의 벽지불, 즉 二乘으로서의 성

<sup>14</sup> ‘……南無一心奉請 靈山當時 受佛咐囑 恒居天台山上 獨修寤寤 之惠雙修 不入涅槃 爲作福田 待俟龍華 那畔尊者 并從眷屬 惟願 慈悲 降臨道場 受此供養……’; 『靈山大會作法節次』〈獨聖儀文〉(『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2집)

<sup>15</sup> ‘혼자 인연의 이치를 깨달아 도를 이룬 소승불교의 성자에 대한 통칭. 獨聖, 獨聖修, 獨聖尊者’; 지관 편저, 『伽山佛教大辭林』5(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0), p. 51.

<sup>16</sup> 독각이란 梵語 ‘Pratyeka-buddha’의 음역으로 ‘발랄예가불타’ ‘벽지가불타’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에 이르러 벽지불 또는 獨覺이라 불리며, 12인연의 이치를 깨달아 모든 번뇌에서 벗어났다는 까닭에 緣覺이라 말하기도 한다. 독각은 緣覺이라고도 하며 辟支佛로도 불리며 聲聞과 더불어 二乘의 하나이며 보살까지 합하여 三乘의 하나가 된다; 지관 편저, 『伽山佛教大辭林』5(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0), pp. 50-5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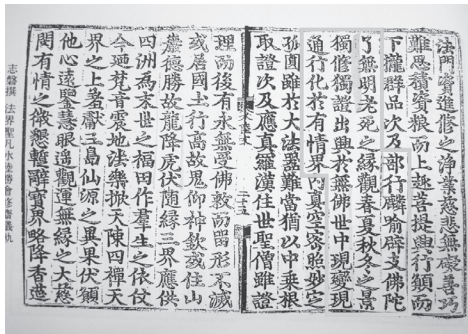
<sup>17</sup> 송 이래 설행된 수록재에는 망자추천, 특히 무주고혼의 천도라는 설행목적이 분명하여 정토신앙과도 관련된다. 송대 수록재의 성립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수록재와 천태종과의 관계, 그리고 정토신앙이다. 송대 수록재가 의식으로 자리 잡고 유행하게 되는 데에 천태종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수록재 의식문의 형성에는 천태사상의 영향이 크다. 기본적으로 범화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호선, 『宋·元代 水陸齋의 성립과 변천』, 『역사학보』206(2010), pp. 150-151.

<sup>18</sup> 예를 들어 소식은 법운사의 선본을 초청해서 수록재를 설행하면서 쓴 『水陸法像讚』(1093)에서 상하단에 봉안하는 16위에 대한 찬을 썼는데, 그 중 一切常住大辟支迦衆, 즉 벽지불에 대해서는 ‘現無佛處, 如第二乘, 如日入時, 膏火爲燈, 我說三乘, 如應病藥. 敬禮辟支, 卽大圓覺’이라고 찬하였다; 『水陸法像讚』, 『소식문집』권22(북경 중화서국, 1986)

격을 강조하고 있다.<sup>19)</sup>

조선전기 간행되었던 수록제 의식집인 『天地冥陽水陸雜文』(1496)의 〈水陸緣起〉에도

“대저 수록회라고 하는 것은 상인 즉 法界諸佛, 諸位菩薩, 緣覺, 聲聞, 明王八部, 婆羅門仙을 공양하고, 그 다음으로 범왕, 제석, 이십팔천, 盡空宿耀 등 일체존신을 공양하며, 下인 즉 五嶽, 河海, 대지, 신룡, 왕고인륜, 아수라중, 冥官眷屬, 지옥중생, 휴훈, 체백, 무주무의제 귀신중, 법계방생육도, 四聖六凡을 보통 공양한다.”<sup>20)</sup>



도 4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1573, 공립사刊)

고 하여 緣覺을 상단에 배치한다고 밝히고 있어 중국의 수록제에 대한 이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외에도 조선시대 설행된 삼단구성 수록제에서 벽지불에 대한 공양을 엿볼 수 있다<sup>21)</sup>. 대표적으로 1573년 공립사에서 간행한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sup>22)</sup>의 〈소청상위편〉(도 4) 중에 ‘...부행과

19 〈중국수록제 속의 벽지불 공양〉

	출처	공양대상
楊鐸 (974~1020)	「宣白召請上堂八位聖衆」 「宣白召請下堂八位聖衆」	불타, 달마, 승가삼보/ 보살/ 辟支迦/아라한/오룡신선/ 호법천룡 관료이중/ 삼계제천/ 아수라/ 인/ 지옥/ 아귀/축생/ 육도외자
소식	「水陸法像讚」(1093)	上八位：一切常住佛陀耶衆/一切常住達摩耶衆/一切常住僧家耶衆/ 一切常住大菩薩衆/一切常住大辟支迦衆/一切常住大阿羅漢衆/ 一切五通神仙衆/一切護法龍神衆
명주공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行上堂召請法事’ 상위：불·법·보살·緣覺·성문·교법을 전한 선율의 모든 종사와 조사·오신룡신·십대명왕·사리, 계단, 불탑, 가람, 삼귀의 오계를 받은 모든 불제자·십대사 등

20 『天地冥陽水陸雜文』(149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詳夫水陸會者 上則供養法界諸佛 緣覺 明王八部 婆羅門仙 次則供養 梵王 二十八天 盡空宿耀 下則供養 往古人倫 阿修羅衆 地獄衆生 幽魂 滯魄 無主無依 諸鬼神衆 四聖六凡 普通供養”

21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를 비롯하여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등 조선시대 수록제의식과 관련된 의식집의 〈소청상위(또는 봉청상위)편〉에서 벽지불을 단독으로 신앙하는 형태가 아니라 불법승 삼보공양의 하나로 공양하고 있다.

22 조선시대에 간행된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지반문)는 명대의 6권본을 축약하고 생략하여 간행하였다. 명대 雲棲 株宏(1555~1615)이 지반의 『水陸新儀』를 重訂하여 편찬한 『법계성범수록승회수재의궤』1~6권은 현재까지도 수록의궤의 전범이 되고 있다. 6권본에서는 제2권 〈行上堂召請法事〉에서 연각승에 대한 공양내용을 자세히 적어 놓았다.

인유의 벽지불타<sup>23</sup>는 무명과 생사의 인연을 통달했고 춘하추동의 경치를 관조한다. 홀로 수행하고 홀로 증명하여 부처님이 없는 세간에 출현하여 변통을 보이면서 중생들 세상에서 교화를 실천한다. 진공은 몰래 비추고 오묘한 선정은 홀로 원만하니 비록 큰 법기라 감당하기 어렵지만 중생의 근기로 증험을 얻었다....<sup>24</sup>고 하여 조선시대 의식문 속에서의 벽지불의 성격이 드러나 있다.

이처럼 수록재를 비롯한 조선시대 의식문 속에서의 연각(벽지불)에 대한 공양은 삼보공양 중의 하나로 경전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공양문이 작성되고 있다. 홀로 수행하면서 무불세에 출현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벽지불의 성격은 조선시대 의식집 속의 <독성청>이나 <독성의문>에 보이는 '석가입멸 후 열반에 들지 않고 미륵불이 올 때까지 선정을 닦으며, 중생을 위해 福田이 되는' 독성의 성격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1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성립된 독성신앙의 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一心奉請盡虛空徧法界十方常住諸緣覺僧并諸眷屬

“仁王護國經中 八百萬億 大仙緣覺, 佛出世時 從山中來 五百緣覺, 佛法滅後 一時出現 七百俱胝獨覺, 出有佛世 聞法得道 諸大緣覺, 出無佛世 自然悟道 諸大獨覺, 出無佛世 部行麟喻 諸緣覺獨覺, 具相不具相 諸緣覺獨覺, 現通不現通 諸緣覺獨覺, 說法不說法 諸緣覺獨覺, 通教八地辟支佛 藏教辟支佛”

惟願不違本誓 哀憫有情, 是日今時, 降臨法會(法師想十方緣覺, 嚴肅威儀, 從空而至)...

…一心奉供盡虛空徧法界十方常住諸緣覺僧并諸眷屬

惟願不違本誓 安住道場 是日今時 受茲供養(表白振鈴宣偈 并述撰文)

“出有佛時知學道 聞因緣法悟無常, 如斯得度號中乘 以鹿爲車方便設, 滅後未來常示現 自然覺悟豈無因, 部行應化接 當機 究竟權方皆實義, 獨拔利根麟載角 更侵習氣炭成灰, 十方緣覺聖賢僧 於此一時俱奉供”

伏以緣覺獨覺, 何遽列於兩名, 內觀外觀, 只同歸於一道, 具相不具相以論大小, 說法佛說法而別智遇, 繇一念空, 以及 根塵空, 自無明滅, 乃至老死滅, 歷去來今世, 斷苦惑業因, 承盡見思, 故不行於正使, 常耽寂定, 姑取證於無生, 加更侵習氣之功, 故特出聲問之右, 三多積行, 十地分階, 稟教次第, 則從佛乃知, 覽物榮枯, 則舞師自悟, 惟願助宣正化, 熟此方震旦之緣, 權示中乘, 受茲口檀那之供, 密迴慧照, 俯運悲懷, 冀廣度於迷流, 俾咸登於樂土, 大衆和云 故我 一心歸命頂禮(法師施主作例表白白言)...

<sup>23</sup> 獨覺에는 部行獨覺과 麟喻獨覺의 두 종이 있는데 부행독각은 앞서 성문이었을 때 不還果(아나함果)까지 얻고, 第四아라한과를 증할 때에 부처님의 교도를 받지 아니하고 홀로 스스로 깨친 것을 말하며, 인유독각은 홀로 살면서 100대劫 동안 수행하여 선근공덕을 닦아 마침내 홀로 깨친 것을 말한다. 여기서 部行이라 함은 성문이었을 때 여럿이 모여 단체수행을 한 것을 말하고, 麟喻라 함은 처음부터 짝이 없는 獨住者임을 말하는 것이다. 지관편저, 『伽山佛教大辭林』5,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0), pp. 50-55.

<sup>24</sup>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소승상위편) (『韓國佛敎儀禮資料叢書』제2집) “.....部行麟喻辟支佛陀了無明老死之緣觀春夏秋冬之景獨修獨證出興於無佛世中現變現通行化於有情界內真空密照妙之孤圓雖於大法器難當猶以中乘根取證.....”

『법계성범수록승회수재의궤』에 수록된 김수온의 발문에는 1470년의 연대기가 있으며 대왕대비의 명으로 간행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수록재 절차는 크게 삼단의 구성이 주류를 이루며 하단을 위한 절차가 절반이 넘는 정도로 비중이 높다. 1573(선조6) 충주 월악산 덕주사에서 간행된 『수록무차평등제의궤』의 절차 또한 『법계성범수록승회수재의궤』와 대동소이하다.

이는 십육나한이나 오백나한을 지칭할 때 십육성중, 오백성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듯 독성(독수성중)이라는 표현은 홀로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은 존재인 獨覺(연각, 벽지불)이 중생에게 福田이 되는 사명을 부여받아 성자의 지위(독성나반존자)를 획득한 존재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sup>25</sup>

### Ⅲ. 那畔尊者의 어원

독성의 또 다른 말인 ‘나반존자’는 오로지 조선후기 불교의식집의 독성관련 내용과 독성도의 화기에만 보이는 용어이다. 따라서 독성에 대한 많은 오해가 생긴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이 나반존자라는 명칭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금부터 ‘那畔’의 어원을 『眞心直說』을 비롯한 禪家의 전적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普照國師 知訥(1158~1210)의 『眞心直說』<sup>26</sup>에 나오는 ‘威音那畔人’이라는 용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는 眞心에 대해 15개의 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진심의 묘체에 대해 설명한 부분에 나오는 ‘威音那畔人’이라는 말이 있다.

‘…… 眞心妙體는 고요해서 모든 희론을 전부 끊었다. 그러므로 생기는 것도 아니며,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움직이고 흔들리지 않는 성질이다. 아주 맑게 항상 고요히 머문다. 그래서 옛날 主人翁이라고 이름을 부른다. 威音那畔人이라고도 하고 또 공겁전의 自己라고도 한다... ..’<sup>27</sup>

즉 진심의 묘체에 대해 ‘옛날주인翁’, ‘위음나반인’, 또 ‘공겁(아주 오래전) 이전의 자기’

<sup>25</sup> 聲聞, 緣覺의 대승전환에 대한 내용은 일승사상과 방편설을 실한 『법화경』을 비롯하여 여러 경전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 한 예로 『약사본원경』의 “네 번째 대원: 원하건대 내가 내세에 보리를 얻었을 때 만일 중생들 중 싹튼 도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모두 보리의 도에 안주하도록 하고, 성문승이나 독각승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대승의 입장에 서게하도록 하리라”라는 내용을 들 수 있다.

<sup>26</sup> 『眞心直說』은 眞心の 내용과 진심을 얻는 수행방법에 대해 설명한 책으로 고려 때부터 불교 교육의 교재로 사용되는 등 한국 선종의 발전에도 크게 공헌한 책이다. 이 책을 지눌의 진작으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으나 지은이가 누구인지를 떠나 조선시대에 위음나반 신앙 또는 위음나반에 대한 이해가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

<sup>27</sup> 『眞心直說』〈眞心妙體〉‘或曰眞心已知名字 曰放光般若經云 般若無所有相 無生滅相 起信論云 眞如自體者 一切凡夫聲聞緣覺菩薩諸佛 無有增減 非後際滅 必竟當恒 從本已來 性自滿足一切功德 據此經論 超出因果 通貫古今 不立凡聖 無諸對對 如太虛空 遍一切處 妙體凝寂 絕諸戲論 不生不滅 非有非無 不動不搖 湛然常住 喚作舊日主人翁 名曰威音那畔人 又名空劫前自己... ..’

라고 부르고 있는데, ‘위음나반인’에서 威音이란 『법화경』 〈상불경보살품〉에 나오는 최초의 부처인 위음왕여래를 가리키며 나반의 사전적 의미는 ‘저쪽, 피안, 이전’ 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위음나반인이란 ‘위음왕보다 더 이전의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중국 남송대의 『五燈會元』(宋 혜명, 1253)에도 위음나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어 선가에서는 남송 및 고려시대에 위음나반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8</sup>

이후 위음나반을 비롯하여 나반과 결합된 용어는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선문염송설화』, 『禪家龜鑑』과 같은 많은 선종 서적에 등장하고 있다(표 1). 『선문염송설화』에는 ‘靑山那畔’ 또는 ‘靑嶂那畔’ 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나반은 彼岸의 의미 정도로 보아야 하지만 ‘나반’의 쓰임이 다른 단어들과 결합되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위음나반을 비롯하여 기타 나반이 붙은 단어들이 獨聖那畔尊者의 정확한 전거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반의 의미가 위음나반의 ‘이전’이라는 의미나 ‘저쪽’ 또는 ‘피안’과 상통하는 의미로 여러 문헌에 재인용되고 있어 점점 어떤 신분(또는 신격)을 나타내는 용어로 변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공겁 이전의 사람이라는 의

표 1 那畔 관련 기록이 보이는 문헌

출전	저자	간행연도
『眞心直說』	보조지눌(1158~1210)	
『太古和尚語錄』	普愚(1301~1382)	1385
『禪門拈頌說話』	각운(覺雲, ?~?)	
『拈頌說話節錄』	碧松智嚴(1464~1534)	
『禪家龜鑑』	休靜(1520~1604)	
『四溟大師集』	四溟堂(1544~1610)	
『映虛集』	映虛海日(1541~1609)	
『枕肱集』	懸辯(1616~1684)	
『東溪集』	東溪敬一(1636~1695)	
『禪門五宗綱要』	志安(1664~1729)	
『無景集』一	無景子秀(1664~1737)	
『松雲大師奮忠紆難錄』	惟政(1544~1610)	1688
『三峯集』, 〈金剛山楡岾寺雲翠堂重建上樑文〉	화악지탁(1750~1839)	
『東師列傳』一, 〈海運禪師傳〉	覺岸(1820~1896)	
『鏡虛集』	鏡虛惺牛(1846~1912)	
『礫山集』, 〈興國寺滿月寶殿與十王重修記〉	映虛善影(1792~1880)	1888
『寂滅示衆論』	釋智渾 撰	

<sup>28</sup> 『五燈會元』(宋 혜명, 1253)은 송대의 불교서적으로 『경덕전등록』 등 다섯 종류의 선종사서를 압축하여 재구성한 선종의 通史이며 全20권이다. 直須向威音那畔, 空劫已前, 輕輕著(권20), 石橋那畔有, 這邊無(권15), 威音那畔元只是者個(권4) 등에서 위음나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로 ‘위음+나반+인’으로 명사화되어 사용되었듯이 열반에 들지 않고 미륵이 오기 전의 세상에서 사유에 들었지만 중생을 위해서는 화신을 드러내는 독성의 모습을 ‘독성+나반+존자’로 명칭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즉 17세기 이후 문헌에 등장하는 나반존자는 특정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천태산에서 선정에 든 채 미륵이 오기를 기다리는 모든 존자를 총칭하는 일반명사일 것으로 생각되며, 신앙과 의례의 진화과정에서 점점 홀로 수행하는 독성(나반존자)이라는 의미의 고유명사로 고착되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 IV. 獨聖信仰의 성립과 전개

### 1. 獨聖信仰의 성립

독성관련 기록 중 가장 빠른 것은 1634년에 간행된 『靈山大會作法節次』<sup>29</sup>에 수록되어 있는 〈獨聖儀文〉(표 2)이다. 여기에는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한 開啓疎와 眞言에 대한 언급이 있어 전체 재의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17세기를 전후하여 독성신앙이 하나의 독립된 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독성의문〉의 ㉓~㉑행은 由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유치란 재를 올리는 이유를 설명한 부분으로 여기에는 독성의 성격과 형상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특히 석가 입멸 후 미륵이 나오기 전에 홀로 선정에 들어있는 존재로 만약 공양을 올리면 신통을 발휘해 소원을 이루어주게 한다는 내용은 이후 등장하는 각종 의식문 속의 독성관련 재문과 대동소이한 구성을 보여준다. ㉒행은 독성재 설행이유가 드러난 부분으로 齋者의 갖가지 재앙을 없애주고 여러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30</sup> 18세기

<sup>29</sup> 『靈山大會作法節次』는 영산재를 거행하는 작법절차를 위주로 하여 소례결수작법절차(小禮結手法節次), 중례문작법절차(中禮文作法節次), 지반문작법절차(志磐文作法節次), 성도작법절차(成道作法節次), 별축상작법절차(別祝上作法節次), 독성의문(獨聖儀文), 지장단청(地藏單請), 야작법절차(夜作法節次) 등이 실려 있다.

<sup>30</sup> ‘...供養者 何福而不成 禮拜者 何災而不滅 伏願齋者某人保體 日日有天祥之慶 時時無百害之殃...’이라고 하여 공양과 예배를 올리는 齋者들이 모든 복을 다 이루고 모든 재액을 다 물리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표 2 『靈山大會作法節次』〈獨聖儀文〉

獨聖儀文(開啓道場淨嚴諸眞言如常)

- ㉠ 仰惟獨聖者 釋尊既滅之後 慈氏未生之前 不往塵區 隱現無礙
- ㉡ 或於層層臺上 靜居安禪 或於落落松間 往返任意 山隱隱水潺潺
- ㉢ 一間蘭若 坐臥逍遙 華灼灼鳥啼啼 聲色紛然 經行自在
- ㉣ 霞衲半肩而樂道 雪眉覆眼而觀空 現住禪那 應供無量
- ㉤ 若伸供養之儀 必賜神通之鑑 有求皆遂 無願不從 今有此日
- ㉥ 娑婆世界(南瞻部洲 朝鮮國 某處居住 齋者某人等)...
- ㉦ 特爲己身 能滅千災 成就萬德之願(設於某山草堂以今月某日夜)
- ㉧ 淨啓香壇 將陳妙供 再蒸名香 仰請天台山上 獨修聖衆 并從眷屬
- ㉨ 仰祈妙援者 右伏以 盥手焚香 禮敬於眞眞 庶仗清磬 召請於玄關
- ㉩ 暫辭寶窟 略降香壇 受此供養 滿我願心 謹秉一心 先陣三請
- ㉪ 南無一心奉請 靈山當時 受佛咐囑 恒居天台山上 獨修寤寤 乞惠雙修
- ㉫ 不入涅槃 爲作福田 待俟龍華 那畔尊者 并從眷屬
- ㉬ 惟願 慈悲 降臨道場 受此供養
- ㉭ (三請獻座)次(諸眞言勸供消災呪若干遍面向祝願表白云)
- ㉮ 上來修齋 情旨已敷筭宣獨聖者 神通救護於塵邦苟切
- ㉯ 歸依必蒙饒益 供養者何福而不成 禮拜者何災而不滅
- ㉺ 伏願齋者某(保體) 日日有天祥之慶 時時無百害之災
- ㉻ 抑亦一門眷屬同致吉祥然後願無邊法界有識含靈 伏此勝緣 俱成正覺念

※ 띄어쓰기 및 밑줄, 괄호, 열번호표기 등은 필자 임의로 조정함.

초반까지의 독성의문에서도 대체로 ‘災厄頓除福壽延長’<sup>31</sup>으로 설행목적을 밝히고 있어 초기 독성재의 설행은 액을 없애고 수복을 기원하는 개인적인 기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성신앙은 이처럼 ‘미륵이 하생하기 전까지 속세에 나가지 않고 선정에 머무르며 한량없는 응공으로, 공양을 올리는 자에게는 신통으로 살피어 소원을 이루어 주는 존재’인 동시에 말세의 복전이 되어 齋者の 재액을 없애주고 복을 주는 현세기복신앙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勸供諸般文』(1574)에 수록된 〈羅漢請〉<sup>32</sup>에 ‘미륵이 오기 전까지 안으로 보살행

<sup>31</sup> 〈獨聖請〉 『諸般請儀文集要』(보림사사천왕상복장진언의식관계불서 중) 및 〈獨聖請〉 『운수단가사』(불갑사석가삼존상·십육나한상복장전적) 등 모든 독성재의문에 공통으로 기술되어 있다.

<sup>32</sup> 『勸供諸般文』(1574, 안변 석약사개판) 〈羅漢請〉 “仰惟十六聖衆者 能仁已滅之後 慈氏未生之前 內秘菩薩之行 受佛勸而不就 寄滅張慧力而現住禪那 惑於巖邊 霞衲半肩而樂道 惑於月明松下 雪眉覆眼而觀空 百億刹中 應供無量 三千界內 弘範無窮 若伸供養之儀 必賜神通之鑑 有求皆應 無願不從 是以三寶弟子(某處某人) 特爲己身 所願圓成 乃至一門俱獲吉祥 謹於(某寺) 以今月是日 淨啓香壇 將陳妙供 再名香 虔誠禮請 一代教主釋迦如來左補處慈氏彌勒菩薩 右補處提花竭羅菩薩 十代聖衆 監齋使者直符使者并諸眷屬 仰祈妙援者 右伏以 特名香 禮敬於眞眞 庶仗清磬 召請於玄關 受此供養 滿我願心 謹秉一心 南無一心奉請 上生兜率 下降閻浮 示八相成道 千百億化身) 釋迦牟尼佛 唯願慈悲 憐憫有情 降臨道場 證明功德(衆和) 香花請...”

을 감추고 성문의 모습으로 중생에게 福田이 되며, 암반과 소나무 아래에서 도를 즐기며 공을 관하는' 십육나한과 그 성격이나 모습이 매우 비슷하다. 나한도량의 대표성을 가진 천태산을 독성의 주처로 삼고 “天台山上 那般尊者 并從眷屬”처럼 주처와 존명, 권속 등을 밝히고 성격에 대해 나열하는 서사구조 또한 십육나한과 상당히 유사하다. 즉 1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형성된 독성신앙의 성립에 나한신앙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의경전이 없는 독성 나한존자의 齋儀文 형성에 기존 활발히 이루어지던 십육나한 신앙이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한신앙과의 유사성으로 볼 때 독성신앙은 당시 불교계에서 유행한 법화사상을 강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법화경의 기본사상은 일승사상과 방편사상이라 할 수 있다. 즉 성문과 연각, 즉 二乘도 성불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방편 설로 설명되고 있다.<sup>33</sup> 이 점은 십육나한이 '성문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보살행을 실현하는 (外現示聲聞 內秘菩薩行)' 대승적 존재인 것처럼 독성 또한 홀로 깨달음을 얻는 존재에서 벗어나 중생의 복전이 되는 성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독성이 천태산에서 열반에 들지 않고 여러 권속들과 수행하며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sup>34</sup>는 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정혜쌍수는 선과 교를 둘로 보지 않고 함께 수행해야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17세기 이후 조선 불교계에 유행했던 선종과 천태법화사상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sup>35</sup>

고려시대부터 성행한 나한신앙이 호국불교적 성격에서 조선후기 점차 개인의 구복과 관련된 성격으로 변하여 신앙과 미술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처럼 독성신앙 또한 수복장수 등 개인적 추복과 관련된 성격이 강하고, 공양을 하면 신통력을 발휘하여 언제나 소원을 들어준다는 즉각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나한신앙의 한 형태로 소규모 신앙 의례의 필요성에 의해 대두된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앞으로 더 많은 자료의 발굴과 함께 논의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sup>33</sup> 다무라시로 외, 이영자 옮김, 『천태법화의 사상』(민족사, 1990), pp. 161-164.

<sup>34</sup> ‘……靈山當時 受佛咐囑 恒居天台山上 獨修寤寤 之惠雙修 不入涅槃 爲作福田 待俟龍華 那畔尊者 并從眷屬 惟願慈悲 降臨道場 受此供養……’

<sup>35</sup> 조선중기 이후 법화사상에는 중요한 변화가 보이는데 법화의 교학적 발전보다는 법석, 경찬소, 의식에서의 법화경 신행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는 빈번한 법화경 간행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서산대사 휴정의 법화경 수용은 방편을 열어 진리에 들어가는 일불승 법문이었다. 특히 『청허집』부록의 영혼을 맞이하는 의식인 영혼식에는 법화경에서 설하는 삼보가 모셔져 신행되었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사회의 법화경 신앙에 대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李起雲, 「서산대사 휴정의 법화경 수용과 신행」(『韓國禪學』제15호), p. 177.

## 2. 信仰과 儀禮의 전개

독성신앙과 관련된 기록은 17세기 이후의 각종 문헌과 불교의식집 등에서 찾을 수 있다(표 3). 그 이전의 자료가 앞으로 더 발굴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대체로 1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독성에 대한 신앙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靈山大會作法節次』의 〈獨聖儀文〉 외에 17세기 독성에 대한 재의식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의식집으로 『雲水壇誦詞』<sup>36</sup>를 들 수 있다. 조선중기에 그 동안의 불교 헌공의식문이 여러 형식으로 되어 오던 것을 雲水, 즉 禪家의 취향에 맞도록 청허후정이 改撰한 책으로 불갑사석가삼존상 및 십육나한상의 복장전적에서 나온 『운수단가사』(1636, 증심사간) 및 보림사 사천왕상 복장전적 중의 『운수단가사』(1653, 청연사刊)에도 〈독성청〉

표 3 독성관련 기록

	독성관련기록/출전	간행연도	비고
1	〈獨聖儀文〉, 『靈山大會作法節次』	1634, 龍腹寺刊	『한의총』 권2
2	〈獨聖請〉, 『운수단가사』	1636, 증심사刊	불갑사석가삼존십육나한상복장전적
3	〈獨聖請〉, 『운수단가사』	1653, 청연사刊	보림사사천왕상복장전적
4	〈獨聖請〉, 『諸般請儀文集要』	미상(조선중기)	보림사사천왕상복장전적
5	〈祈禱獨聖文〉, 『楓溪集』	1711경	楓溪明察(1640~1708)
6	〈獨聖儀文〉, 『諸般文附錄』	1719, 해인사중간	『한의총』 권2
7	〈獨聖齋表白〉, 『天鏡集』	18세기	海源(1691~1770), 규장각 소장
8	〈獨聖請〉, 『作法龜鑑』上	1827	백과공선
9	〈獨聖齋儀文〉, 『請文』	1883	규장각 소장
10	〈天台聖殿上梁文〉	18~19세기	경국사 천태성전 현판
11	〈獨聖請〉, 『要集文』	미상(조선후기)	필사본(『한의총』 권4)
12	〈獨聖請〉, 『要集』	미상(조선후기)	필사본(『한의총』 권4)
13	〈獨聖請〉, 『要集』	미상(조선후기)	필사본(『한의총』 권4)
14	〈獨聖請〉, 『請文要集』	미상(조선후기)	필사본(『한의총』 권4)
15	〈獨聖閣瓶建記〉, 『義龍集』	조선후기	미상
16	〈獨聖壇〉, 『釋門儀範』禮敬篇	1935	

※『한의총』: 朴世敏編著, 『韓國佛敎儀禮資料叢書』(삼성암, 1993)

<sup>36</sup> 조선 중기의 禪僧 休靜(1520~1604)이 당시 여러 사찰에서 시행되던 佛菩薩, 天神, 鬼神 등에 대한 獻供儀式을 새롭게 개편 정리한 책으로, ‘雲水壇’이라는 題名은 ‘雲水行脚을 하는 衲子, 곧 禪家가 여러 壇에 獻供하는 의식’이라는 뜻이다. 1607년(선조 40) 순천 松廣寺에서 開刊된 이래 禪家의 대표적인 儀禮文으로 중시되어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새로운 항목이 더해져 절차는 더욱 복잡해졌고 부록으로 迎魂式 등이 첨가되기도 하였다. 명칭도 ‘雲水壇作法’, ‘雲水壇誦詞’, ‘雲水壇儀文’, ‘雲水僧家禮’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었다.(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해제 참조)

이 수록되어 있어 17세기 전반에는 독성과 관련된 재의식이 어느 정도 행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615년 김제 금산사에서 독성을 제작하였다는 기록<sup>37</sup>이 남아있어 17세기 독성신앙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의 독성관련 재문은 현재로서는 楓溪明察(1640~1708)의 문집인 『楓溪集』(1711)의 〈祈禱獨聖文〉<sup>38</sup>과 불가상용의식집인 『諸般文』(1719)의 부록에 실린 〈독성의문〉만이 확인된다. 이 점은 앞에서 언급했듯 독성신앙은 신앙의 성격 면에서 당시 활발히 전개되던 16나한신앙과 차별화되지 못한 탓에 의례가 폭넓게 진행되지 못했던 것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다.

독성신앙은 1827년 『作法龜鑑』의 편찬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作法龜鑑』卷上에는 독성청문이 삼보통청·관음청·지장청·산신청·미타청·성왕청·조왕청 등의 각종 請文과 함께 실려 있는데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신앙과 의례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作法龜鑑』서문에는 찬자인 백파공선이 당시 불교의식과 재공의식문이 체계를 잃고 혼란스럽게 행해지던 현실을 우려하면서 기존의 의식문을 刪補하여 그 규범이 되는 의식서를 펴낸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sup>39</sup> 기록상으로는 1719년 이후 약 100여 년 간 독성신앙의 면모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백파스님의 서문에서처럼 독성신앙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기에 19세기 초 의식문에 수록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作法龜鑑』에는 유치, 헌좌안위, 운심계, 탄백 등 재의 절차에 따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어 그 이전의 재문들과는 구별이 된다. 예를 들어 ‘那畔神通世所稀 行藏現化任施爲 松巖隱跡經千劫 生界潛形入四維’라는 ‘歌詠’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이후의 독성의문에는 대체로 이 가영이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茶偈’ 부분에 역시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天台大法會’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어<sup>40</sup> 독성을 신앙하는 의식을 천태법회라 명명하고 있음을 알 수

37 ‘萬曆四十三年乙卯 獨聖造成 化主 竹衍 畫員 太顛 應元 守衍 法令 印均」 「大藏殿奉安佛像造成年代及七星閣」, 『金山寺誌』(아세아문화사, 1982), p. 216. 이 독성상은 16나한상을 제작한 조각가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수연계통 조각승들에 의해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38 『楓溪集』〈祈禱獨聖文〉 ‘恭惟獨聖那畔尊者天台巖畔 欲普濟於迷淪 索訶 界中 何忍忘其初渡 玆用虔恪 敢于明休 伏念某性 識顯蒙 愆尤迄塞 患出無心而出 禍生無望之生 故盡眞誠 庶須神佑 伏願長承聖力 永賴慈風 更迎禎祥 勿見邪障. 獨聖 那畔尊者에게 올리는 祈禱文으로 聖力을 長承하고 慈風에 의지하여 禎祥을 입고 邪障은 물리치기를 眞誠을 다하여 기원하고 있다.

39 공선, 김두재 옮김, 『한글본한국불교전서 조선1-작법귀감』(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p. 10.

40 ... 獻座安位 妙菩提座勝莊嚴 諸佛坐已成正覺/我今獻座亦如是 自他一時成佛道/唵 嚩囉 尾羅野 莎訶次淨法界眞言/茶偈 此清淨香雲味 奉獻天台大法會/鑑此檀那度懇誠 願垂慈悲哀納受/ 運心偈 願此清淨妙香饌 普供天台諸聖衆/ 慈悲受供增善根 令法住世報佛恩 .....



도 5 〈독성도〉, 1812, 93.2×64cm, 안양원 소장(사진:『한국의 사찰문화재』경북Ⅱ)

있다.<sup>4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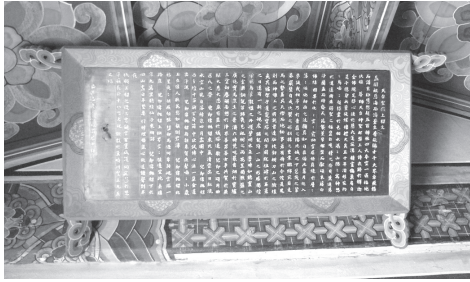
『作法龜鑑』이후에 독성관련 재문은 불가 상용의식집인 〈제반문〉, 〈청문〉 등에 두루 수록되었고 이후 독성신앙은 18세기 말 이후 사찰의 중창과 재건에 따른 산내암자의 증가와 기복 신앙을 중심으로 한 당시 불교계의 상황과 맞물려 한국불교의 독특한 신앙형태로 전개되었다.

300여점을 상회하는 현존하는 조선후기 독성도가 대부분 19세기 이후 제작되었다는 점도 당시 독성신앙의 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이한 점은 약 50여점 정도 알려진 19세기 독성도는 대부분이 1850년대 이후 제작된 작품이다. 현재까지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독성도는 안양원 독성도(1812, 도 5)와 구인사 유물전시관소장 독성도(1818) 두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중반 이후로는 운문사 사리암 독성도(1851)를 시작으로 활발한 제작양상을 보여준다. 물론 19세기 이전에 제작된 작품들이 오래 보존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독성도 제작은 19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십육나한신앙은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전대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진 전각의 건립과 함께 나한전 삼존상 및 십육나한상의 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18세기 이후에는 십육나한도 또한 본격적으로 조성되어 조선후기 불교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성신앙과 미술이 동시대에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성립단계부터 십육나한신앙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여 탄생한 독성신앙이 나한신앙과 차별화 되지 못했던 점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소승적 존재인 성문연각승(二乘)에서 一乘으로 변화된 존재인 羅漢과 獨聖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같은 목적을 가진 예배대상이기 때문에 의식의 집행과정에서는 더욱 차별화시킬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sup>41</sup> 운수암 독성도(1870) 화기에는 ‘천태산의 나반존자를 조성할 때 칠원성군회 한 부와 천태회 한 부, 산령회 한 부를 함께 조성했다(天台山上 獨修聖衆 那般尊者…七元聖君會一部 天台會一部 山靈會一部)’는 내용이 나온다. 불화에서도 1870년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독성을 청하는 의식이 천태법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라 생각된다.



도 6 <천태성전상량문>, 경국사 천태성전 소장  
(필자 촬영)

영산전, 보광전, 원통전 등 다양한 전각에 봉안하거나 소규모 부속암자에 모셨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성재나 천태법회를 열기 위해 특별한 전각이 초기부터 필요하지는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17~18세기 불전의 재건 이후 별도의 예배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신중이나 영가 등을 한 전각에 함께 모셨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42</sup> 따라서 독성각의 건립시기는 18세기 이전으로 올라가는 예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sup>43</sup>

독성을 논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삼성신앙과의 관련 부분이다. 삼성은 독성, 칠성, 산신을 의미하며 불교, 도교, 민간신앙적 요소가 결합된 형태로 자주 다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신앙의 형성시기와 전개에 관련된 부분이 해결과제이다. 삼성신앙의 성립은 칠성, 독성, 산신신앙이 따로 전개되다가 19세기 이후 필요에 의해 합쳐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찰하고자 한다.

## V. 맺음말

이상으로 한국 고유의 신앙으로 주목받아왔던 독성과 관련하여 그 개념을 정리하고 신앙의 형성과 전개과정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첫째 독성나반존자는 십육나

<sup>42</sup> 송은석, 「조선후기 佛殿 내 儀式의 성행과 佛像의 造形性」, 『미술사학연구』263(2009), pp. 80-81.

17~8세기에 새로 건립된 사찰의 대웅전은 기본적으로는 석가불을 모신 불전이었지만, 별도의 예배 공간이 없었던 신중과 영가를 대웅전에 함께 모시게 됨으로써 다수의 예배단이 함께 설치된 복합 불전의 기능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보았다.

<sup>43</sup> 서울 경국사 천태성전은 현존하는 最古의 독성각으로 알려져 있는데 寺傳으로는 1693년에 연화거사가 창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천태성전 내에 걸려있는 <천태성전상량문>(도 6)의 내용속에서 1693년에 창건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상량문을 지은 날짜는 ‘己未孟夏下澣楓南居士撰’이라고 되어있어 연도 차이가 난다. 1693년은 癸酉년에 해당되는데, 상량문의 기미년은 1739년, 1799년 등에 해당되는 간기이다.

한 중의 한 명인 빈두로나 십대제자 중의 한 명인 가섭 등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고찰하였다. 17세기를 전후하여 형성된 독성신앙은 개인적 깨달음을 중시하던 二乘으로서의 연각 벽지불의 존재가 보살행을 행하는 대승적인 존재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며 이는 조선중기 이후의 법화사상 및 선종의 흥기 등 불교계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간 출처가 불명확하여 많은 논란이 되어온 ‘나반’이란 용어의 어원이 선종에서 사용했던 ‘위음나반’을 비롯한 나반관련 용어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즉 17세기 이후 문헌에 등장하는 독성나반존자, 혹은 천태산상 나반존자로 명명된 나반존자는 천태산에서 선정에 든 모든 존자를 총칭하는 의미였으나 신앙과 의례의 진화과정에서 점점 홀로 수행하는 독성(나반존자)이라는 의미의 고유명사로 고착되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독성신앙은 조선후기 의식의 다양화, 세분화 과정에서 새롭게 전개된 십육나한신앙과 차별화되지 않은 탓에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독성이 신앙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선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점은 삼성신앙과의 결합문제 등과 함께 별도로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주제어(Key Words)\_독성(獨聖), 나반존자(那畔尊者), 벽지불(辟支佛), 천태산(天台山), 삼성신앙(三聖信仰)

■ 투고일 2014년 2월 28일 | 심사개시일 2014년 4월 11일 | 심사완료일 2014년 7월 15일 ■

## 참고문헌

### 1. 사료

『勸供諸般文』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釋門儀範』  
『靈山大會作法節次』  
『要集文』  
『雲水壇歌詞』  
『作法龜鑑』  
『諸般請儀文集要』  
『天鏡集』  
『楓溪集』

### 2. 논저

조선충독부, 『朝鮮寺刹史料』下, 1971.  
권상로, 『韓國寺刹全書』상·하,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朴世敏編著,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보경문화사, 1993.  
강호선, 「宋·元代 水陸齋의 성립과 변천」, 『역사학보』206, 2010, pp. 139-177.  
김성일(희찬), 「청허 휴정의 『운수단』가사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南希叔, 「16~18세기 佛教儀式集의 간행과 佛教大衆化」, 『韓國文化』34, 2004, pp. 97-165.  
白錦淑, 「19世紀 佛教界의 動向과 國家의 政策」,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2000.  
송은석, 「조선후기 佛殿 내 儀式의 성행과 佛像의 造形性」, 『미술사학연구』263, 2009, pp. 71-97.  
辛恩美, 「朝鮮後期 十六羅漢圖 研究」, 동국대대학원 석사논문, 2001.  
심호섭, 「朝鮮前期 水陸齋의 設行과 儀禮」, 『동국사학』40집, 2004, pp. 219-246.  
심상현, 「靈山齋 成立과 作法儀禮에 관한 研究」, 위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연제영, 「의례적 관점에서 감로명화와 수륙화의 내용비교」, 『불교학연구』16, 2007, pp. 265-297.  
오출세, 「불교와 민속신앙」, 『불교학연구』제5호, 2002, pp. 41-60.  
유동식, 「불교사찰의 삼성각과 삼성신앙에 대하여」, 『문화인류학』6, 한국문화인류학회, 1973, pp. 142-145.  
\_\_\_\_\_, 「韓國의 土着信仰과 民衆의 佛教受用形態」, 『延世論叢』12, 연세대학교대학원, 1975, pp. 111-139.

- 윤열수, 「조선후기 산신도와 불교습합 신앙」, 『불교문화연구』5, 2005, pp. 203-221.
- 李松熙, 「17~18세기 寺刹內 山神閣 建立背景에 관한 研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성운,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시식·공양의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이지관, 「那畔信仰考」, 『가산학보』제8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가산학회, 2000, pp. 12-17.
- 이희재, 「조선 중종대 왕실의 불교의례-忌農齋를 중심으로」, 『한국불교문화연구』제3집, 2004. 6, pp. 137-151.
- 전도웅, 「경기도 전통사찰의 삼성각 신앙양태」, 『인문사회논총』제12호, 2005, pp. 67-93.
- 正覺, 「영광 불갑사 불복장 의식관계 전적」, 『서지학보』35, 2010, pp. 253-282.
- 정병삼, 「18세기 승려 문집의 성격」, 『한국어문학연구』제48집, 2007, pp. 87-117.
- \_\_\_\_\_, 「19세기 佛敎界의 사상적 추구하고 佛敎藝術의 변화」, 『한국사상과 문화』16, 2002, pp. 160-194.
- 헤일명조, 「수륙재의 복원에 관한 소고-결수문, 수륙무차평등재의필요를 중심으로-」, 『한국음악문화연구』3, 2011, pp. 101-128.
- 홍기용, 「중국 원·명대 수륙법회도에 관한 고찰」, 『미술사학연구』219, 1998, pp. 41-85.
- 홍윤식, 「佛敎儀式에 나타난 諸神의 性格-神衆作法을 中心으로」, 『한국민속학』1, 1969.

## 국문초록

오늘날 전국의 많은 사찰에는 독성을 모신 전각이 독성각, 삼성각 등의 이름으로 남아있고 그 안에는 예배대상으로서의 독성상이나 독성탱화가 모셔져 있다. 그러나 獨聖 那畔尊者는 남방불교 권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국불교만의 고유한 신앙대상이다. 신앙의 바탕이 되는 관련 소의경전은 물론 명칭이나 행적을 알려주는 經論이나 史記도 없고, 오직 우리나라에만 나반존자에 대한 儀式文이 전해져 올 뿐이다.

따라서 그동안 독성에 관한 연구는 칠성, 산신과 함께 三聖신앙과 관련하여 민속학적 관점에서 주로 진행되었을 뿐 독성의 성격이나 도상적 특징, 신앙 배경 등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독성신앙과 관련된 소의경전이 없다는 것과 독성을 지칭하는 다른 말인 那畔尊者라는 명칭에 대한 어원을 명확히 찾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獨聖의 개념을 정립하고 신앙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여러 문헌과 각종 기록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독성나반존자는 16나한 중의 한 명인 빈두로존자나 십대제자 중의 한 명인 가섭존자 등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고찰하였다. 즉 독성나반존자는 천태산에서 수행하는 수많은 獨修聖衆을 의미하는 것으로 홀로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에서 중생을 위해 福田이 되는 성격으로 변화된 존재로 보았다. 이는 개인적 깨달음을 중시하던 二乘으로서의 연각 벽지불의 존재가 보살행을 행하는 대승적인 존재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며 17세기 이후 선종의 흥기 등 불교계의 상황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간 출처가 불명확하여 많은 논란이 되어온 ‘나반’의 어원이 선종에서 사용했던 ‘威音那畔’을 비롯한 나반관련 용어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즉 17세기 이후 문헌에 등장하는 독성나반존자, 혹은 天台山上 那畔尊者로 명명된 나반존자는 천태산에서 선정에 든 모든 존자를 총칭하는 의미였으나 신앙과 의례의 진화과정에서 점점 홀로 수행하는 독성(나반존자)이라는 의미의 고유명사로 고착되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독성신앙은 17세기 이후에 편찬된 불교의식관련 기록과 문헌 등에 관련 기록이 등장하고 있어 1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독성신앙과 거기에서 파생된 미술의 본격적인 전개는 19세기 이후임을 전개과정을 통해 고찰해보았다.

## Abstract

# The Concept of *Dokseong* and Their Faith

SHIN Eun-Mi \*

In Korea, many Buddhist temples have shrines named *Dokseonggak* and *Samseonggak*. These buildings enshrine statues or paintings of *dokseong* or *arhats* for the purpose of worship. However, the *dokseong* do not appear nor are not mentioned in any scriptures (which are supposed to form the basis of their faith), Buddha's words, (which could help them learn a certain vocabulary and Buddha's life) or the history of Buddhism. Moreover, the text that is used in rites of worship of the *dokseong* has been transmitted only in Korea.

As yet there have been no studies of the nature, iconic characteristics and religious background of the *dokseong* because no scriptures of solitary Buddhism exist and no clear etymology of *dokseong* has been identified.

This paper attempts to clarify the concept of *dokseong*, a concept that has generated great controversy, and elaborates on how their faith has grown, based on different documents and records. First of all, this study explains that the *dokseong* were neither one of the sixteen arhats nor one of the Śākyamuni Buddha's ten major disciples. In other words, *dokseong* refers to the numerous novices who trained themselves on Cheontaesan Mountain, and who, upon attaining enlightenment, finally became Buddhas. This is a broader concept of *pratyekabuddha*, which emphasizes self-enlightenment, and reflects the situation of Buddhism after the seventeenth century, which was characterized by the rise of Seon Buddhism.

In this context, this study considers the possibility that in Korea, the term *dokseong* might have been used by King Seonjong. In other words, from the seventeenth century,

---

\* Assistant curator, Songam Art museum

references to *dokseong* contained in historical documents may have referred to all the Buddhist novices staying on Cheontaesan Mountain. However, as the religion and its rites developed, the term would have begun to signify only those persons who trained and disciplined themselves alone in the pursuit of enlightenment.

Solitary Buddhism appears in records of and documents about Buddhist rites that were published after the seventeenth century. The concept was thus formed around that period, but it was only after the nineteenth century that faith and art related to lone Buddhism started developing in earnest.